



방탄소년단 공연 사진.

한국 공연 시장에 훈풍 불어

공연티켓 판매액 전년보다 23% ↑ ... 콘서트는 BTS가 1위

2018년 전체 공연 티켓 판매금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내 최대 공연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작년 1월1일부터 12월28일까지 이 사이에서 판매된 티켓금액은 약 5441억원이다. 전년도 4411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콘서트 분야가 2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작년 8월 25, 26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 9만 명이 운집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서울 공연이 인터파크 콘서트 판매순위 1위에 올랐다. 인터파크는 "작년 4월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답답한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5

기 모집 등도 세계 곳곳의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42)도 콘서트 감지임을 확인했다. '싸이 흠뻑쇼-서울'(2위), '싸이 올나잇 스탠드'(3위), '싸이 흠뻑쇼-부산'(5위) 등 작년 연 브랜드 콘서트의 지역 공연까지 상위권에 올랐다. '이문세 더 베스트'가 4위, '조용필&위대한 탄생 5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가 6위다. 내한공연 중에서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라는 타이틀로 내한한 미국 힙합 스타 캔드리 라마(32)와 샘 스미스(27)의 공연이 인기를 누렸다. 미국 R&B 스타 위켄드(29), 미국 팝 스타 찰리 푸스(28) 내한공연도 주목 받았다.

장르별 성장률을 보면 뮤지컬 판매액이 25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성장했다. 특히 3년만에 내한한 '태양의 서커스'가 국내 초연한 '쿠자'가 연말 공연 문화 수요를 흡수했다. 또 창작 뮤지컬 초연 '웃는 남자'와 국내 라이선스 초연작 '미틸다', '라이온 킹' 첫 인터내셔널 투어 등 기대가 높았던 뮤지컬 공연이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뮤지컬 판매규모를 키운 것으로 인터파크는 분석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티켓판매금액은 2017년보다 소폭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공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고 전했다. 집계대상은 초대권을 제외한 인터파크 판매 공연이다. 인터파크 웹, 전화, 모바일, 현장, 제휴처 등을 통한 판매금액을 집계했다. /뉴시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오늘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사업 · 정책 방향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오늘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19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콘진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개편한 지원사업과 지원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총 예산 약 3660억 원에 달하는 각 장르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일대일 상담부스를 함께 운영한다. 설명회는 김영준 한콘진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게임산업 ▲방송산업 ▲지역콘텐츠 ▲문화기술 ▲해외사업 및 금융지원 ▲기업육성·인재양성 등 각 콘텐츠 장르 세부별 지원사업 예산 및 계획과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로 이어진다. 또한 본부별 발표에 앞서 박승룡 경영본부장은 올해 한콘진이 주력할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발표에서는 ▲공정평가 담당관 제도 ▲심사평가 위원 검증위원회 운영 등 지난해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대국민 토론회'를 기점으로 진행해온 제도개선 결과를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완전 폐지 ▲기업신용조회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 등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콘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

ok.com/koreacontent)과 유튜브(www.youtube.com/user/KoreanConte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한콘진은 지역소재 콘텐츠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5일 부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 17일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지역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2019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는 별도 참가비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콘진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시스

과거의 향수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온다

극단삼각산연극 '금의환향' 18일 부안예술회관 공연

원로예술인 공연확산 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기획공연 극단 삼각산(대표 장미자)의 연극 '금의환향'이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극단 삼각산의 이번 공연(강석호 작, 윤우영 연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로예술인 확산 지원사업 수행처로 선정돼 전국 5개 지역 투어를 앞두고 있다. 성수아트홀(1월 12~13일) 공연을 시작으로 부안예술회관(18일), 대전 서구문화원아트홀(22일), 여주 세종국악당(30일), 문경 문화아트홀(2월 15일) 등 총 5개 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이번 연극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있던 사람과 그를 기다리는 주인공 박우창(박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삶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극단 삼각산의 대표인 장미자를 중심으로 원로 및 중견단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무게감 있는 작품과 연기력으로 연극계 내의 존재감이 확고하다. 특히 지난 2017년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본선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연을 맡은 배우 박웅은 2018년 제63회 대한민국예술원상(연극배우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50여 년간 연극무대의 산증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의 반증이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과 한국연극배우 협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회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우리나라 연극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인 장미자 역시 연극무대와 미디어를 오가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배우다. 이외에도 이태훈, 문경민 배우 등 수많은 무대와 미디어를 통해 얼굴이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할 것이며 송정바우, 유준원, 류지애, 이미애, 강은 등 극단 삼각산을 이끌어온 중견배우들이 대거 참여하여 극적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무료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 박물관, 새해 첫 민화 회원전 선보여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이 새해를 기념해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오는 31일까지 중앙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중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유안순 책임강사를 초빙해 해마다 민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 민화 아카데미를 수강한 회원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2014년 제30회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전통공예대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전북미술협회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안순 작가를 비롯해 이은하 작가 등 8명의 작품이 걸린다. 박물관 관계자는 "민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친근하고 재미있는 민화를 주제별 이야기로 접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